

六·二五를契期로中斷된 學會運營이 겨우 本軌道를찾게되어 우리의雜誌가 다시 續刊을보게된것을 衷心으로 祝賀하는바이다 八·一五後萬難을克服하고 運營하여 온 옛追憶 六·二五後釜山으로避難와서 共同안 再建을爲한任員諸氏의 努力을同顧하니 오늘의結實이偶然이아니며 努力이있는곳에 成果를얻게됨을 다시금 느끼게된다 여기에 技術者의覺悟라는提題로서 뜻을들게된것은 지나간經驗에서얻은 앞날의 指向을 讀者여러분에게 提議하여 國家民族을爲하여 우리는 技術者로서 올바른 貢獻을 하여보자는것뿐이다 大體社會에서常用되는 技術者라는것은 어떠한사람을 말하는것인가? 技術者라는말이 너무나多方面으로 多種類로 有用되고 있기때문에 爲先其定議를하여두는것이 以下記述에 明確性을 얻게될것이다 나는簡單히定義하여 『技術者는 自然을活用하여 人類生活에便利를 寄與하는者이다』라고하겠다 自然을活用하기爲하여 自然의學理를研究하는學者가있을것이요 이미發見된學理를利用하여 機器를 만드는製作技術者가있을것이요 또는 이機器를運轉하여 우리人類生活에 直接便利를提供하는運轉技術者도있을 것이다 要是以上記述한 學者製作技術者及運轉技術者가 全部技術者인것이요 이三段階의技術이順調로發展되어 비로소 自然을充分히活用하게될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各者가屬하는段階에따라 全力을다함인 其任務임을 明確히알게된다 내가處하여있는 部分이上述한바 三段階의 어느段階임을 確認함에 其任務에따라 最善을다하는것이 가장 現在分業實情에 비추어適切한處身이라 할것이다 그러면 今日的우리韓國의 電氣技術界의實情은如何한가? 이를말함으로서 우리技術者各者의 任務와指向이確然하여질 것이다 첫째로 研究界 或은理論界를보면 極히微弱한狀態로서寒心하기 짝이없다 過去의經歷이 不足함도勿論이거니와八·一五解放後를말하여도 國家的研究機關의缺如와 此方面에關與하여서는生活經濟의確保가 困難하는關係等으로하여 有能한技術者의抱攝이 不能하여 不進의一路를밟고있는形便이다 따라將來를生覺할때寒心한現狀에있다 둘째로製作技術界를살펴보자 이亦是遲々不進한現狀으로 日政戰爭末期에重要生産工場疎開의惠澤으로京仁地區에設立되었던東京芝浦二重電氣 大廠變壓器及松下電球等貴重한 生産工場도需要不足으로 活潑한 運營을보지 못하였으며 雪上架上格으로六·二五事變으로因하여 大部分의施設이破壞되고 再起의 希望이 아득한現實이다 더욱歸財運營而의 許多危險路는前途를가로막고있으니 氣막힐 事情이나 前記한바 研究界의微弱과아울러 國家百年之計로서適切한措置對策이必要한바 로서積極的施策이없이 自主成立이 難望하다

셋째로 運轉技術界를 하면 既往에 施設된 重要機械의 運轉은 無條件必要하니 이것만이 겨우 維持되어가고 있는 形便이다. 이것도 過去를 回顧하면 不足하기는 하나 나날이 削得되는 經驗을 土台로 若干式이나 前進의 方向을 잡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이亦前記 研究界及 製作界의 補助를 얻지 못하고 運轉一面 自身이 研究修理等을 擔當치 아니치 못할 處地로서 重荷에 히덕이는 形便이다.

以上 現實情을 보진대 여기에 우리 技術者의 重要任務가 무엇이며 何處에 우리의 任務가 所在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自主獨立의 基礎가 된 經濟自立이 產業自立에 있음을 生覺할 때 一은 工業의 動力이요 原料인 電力을 擔當한 우리 電氣技術者의 任務가 그얼마나 重且大함을 再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 우리 技術者의 取行은 如何한가? 우리 各者々가 한 번式 反省하여 보자 社會의 惡條件 周圍環境의 影響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技術者가 너무나 各者의 任務를 잊지나 않았는가 理論의 追究 實地의 檢證이러한 眞摯한 學究心을 가지고 自己의 任務를 忠實히 完遂하고 있는 技術者가 그얼마나 되는가 그지 適當히 現實만 糊塗하면 그만이지 그까지 理論이고 實地이고다. 따져 무얼 하나니 先衣食을 確保하고 經濟를 解決하여야 하지 하는 技術者가 그얼마나 많은가 現實이 이러하니 私生活을 無視할 수는 없는 바라이의 可否를 評함은 그만두고 나는 이러한 現實의 結果가 어떻게 되는가를 憂慮한 뿐이다. 이르고 보면 百年後나니 萬年後일지라도 到底히 우리 힘으로 우리 技術을 確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언제까지나 남의 技術에 살고 남의 生産에 依存치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에 滿足할 것인가 아니다. 여기에 나는 技術者 여러분께서 覺悟를 要求하는 바이다. 卽우리는 技術者로서 어디까지나 뚜렷한 目標을 가지고 技術者답게 自己 맡은 바 任務를 바라지 말고 技術을 살리기爲하여 努力하자. 周圍環境이 如何하든 우리의 任務는 產業自立을爲하여 自主的인 技術을 確保하는 것뿐이다. 往々히 世論에 『技術々々 하지만 政治를 떠나서 技術이 어찌 살 수 있느냐』 或은 『技術者도 政治를 배워야 한다』 云々으로 社會에서 通俗의 口로 評을 한다. 一見 現社會 實情에 符合되는 處世인 듯 보이다. 그러나 나날이 이를 反對로 生覺한다. 技術은 技術이요 政治는 政治이다. 現社會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부끄러워할 것이 不순이오 그 社會가 不完全하다고 본다면 眞情 技術이 무엇이요 政治가 무엇이 임을 認識한다면 이러한 말은 없을 것이 아닌가. 技術은 前記한 바와 같이 自然이 對象이요 機械가 對象인 反面에 政治는 人間이 對象인 것이니 여기에 自然히 觀念이다를 것이요 對策이 달라질 것이다. 技術을 할려면 呼曰 政治는 멀어지는 것이요 反面 政治를 할려면 技術을 모르게 되는 것이다. 呼曰 政治人이 技術을 모르는 것과 같이 技術人도 政治를 모르는 것이 至當한 것이다. 政治를 배우자 政治를 알아야 한다. 云々 하는 지 함은 技術人이 될 資格이 없는 것이다. 技術은 오직 技術로써 實踐을 할 것이요 追究하여야만 오직 技術에 살 수 있을 것이다.

上記한 바와 같이 產業自立의 技術自立에서 出發함을 生覺할 때 技術 追究만 아니라도 그얼마나 重且大한 任務인가 雜音이 많고 脫線이 많고 多莫략이 너무나 많은 現社會인 줄만 알고 오로지 技術者된 우리의 使命 完遂만을 覺悟하고 技術自立을 目標로 猛進하자.

政治는 政治人에게
技術은 技術人에게
이것이 分業社會의 原則이다.